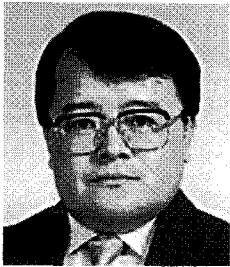


생산자들의 방역의식 고취와 정부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이 주 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장)

닭 고기는 외식산업이 늘어나고 신세대를 중심으로 닭 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으로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외식문화 선호 청소년층이 성장하여 경제주체로 부상하는 10~15년이 지난 뒤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닭고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1년에 7.1kg이던 것이 2005년에는 8.1kg, 2010년에는 9.8kg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2001년 6월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양계산업발전 종합대책에서도 유사한 발전지표를 수립한 바 있다.

닭사육수수도 계속 증가하여 상황에 따라 약간의 진폭이 있겠지만 2005년에 11,000만수, 2010년엔 12,000만수 이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양계 사육규모가 전업화·기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양계 사육규모가 전업화되고 대형화될수록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현재 국내에서 문제되는 닭질병은 약 20여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하는 A급질병 1종, B급 질병 8종이 발생되고 있다. 이중 A급 질병인 뉴캐슬병과 B급 질병인 가금티푸스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손실액은 아니겠지만 뉴캐슬병 발생으로 인한 연간 추정손실액은 육계에서 폐사 등으로 인한 손실, 산란계

에서의 산란율저하로 인한 손실, 종계의 병아리 생산수수 저하 등으로 인한 손실액 등을 종합해 보면 약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타 가금티푸스나 다른 질병으로 인한 손실액도 막대할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양계산업에서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역의 중요성은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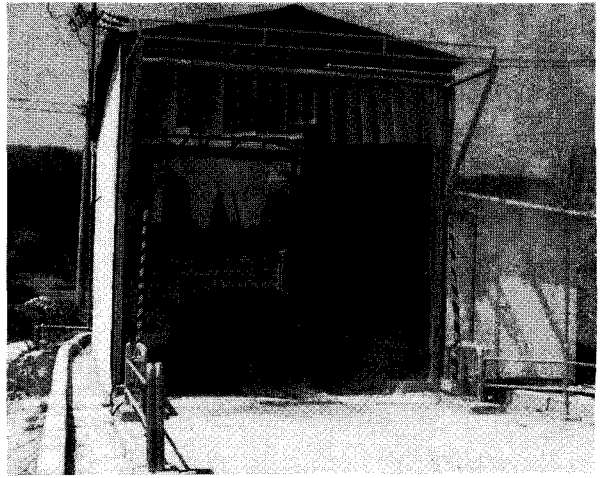
방역·위생측면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닭의 경우 집단사육으로 인해 질병발생시 피해가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뉴캐슬병과 가금티푸스 등 생산성 저하질병이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되고, 닭도축장의 경우에도 자체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도축장 위생관리가 미흡하는 등 여러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닭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단번에 모든 질병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질병 발생을 줄이는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키로한 뉴캐슬병 발생 최소화 사업을 지난 2002.1~2월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면서 나타난 예방접종, 혈청검사, 도축검사, 수송차량 소독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인 뉴캐슬병 발생 최소화 기반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양계질병 관련 방역사업은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방역 등 타 축종에 비해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는 지적들이 많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의 양계관련 방역조



직도 취약하며 방역조직들이 양계관련 질병 방역에 투입되기보다는 소나 돼지 등 타 축종 위주로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동안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양계관련 방역업무가 다소 소홀했던 점은 방역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결코 양계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나타난 결과는 아니라 생각된다.

최근에 뉴캐슬병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방역당국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발생의 증가를 양계질병 방역조직 활성화 여부와 굳이 연결짓고 싶지 않지만은 어찌됐던 양계질병과 관련한 방역에 앞으로 많은 인력이 보완되고 집중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타 축종의 질병 방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질병방역은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방역활동에만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농장에서의 질병방역의 제1주체는 그 농장

주인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생산자 단체, 또는 양계협회와 같은 전국적인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자율적인 민간 방역단체를 운영하면서 국가방역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질병근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사육농가가 많은 양계업에 있어서는 민간 방역기관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질병근절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양계 사육 가구수는 약 200천호로 돼지의 18천호에 비해 약 11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수행에서처럼 뉴캐슬병 발생 최소화 사업에서도 예방접종 확인이나 농가지도 등 방역업무를 똑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치상으로는 돼지콜레라 방역사업보다도 11배 이상의 중앙 혹은 지방 방역조직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질병근절은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여야 가능하며 1개 농장이라도 오염농장으로 남아있으면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양계질병 방역은 지역별 민간 방역기관 혹은 중앙단위의 민간 방역기관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대한양계협회 주관으로 위생방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극히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양계산물 생산에 관련되는 위생과 방역에 관한 조사, 연구, 지도 및 보급과 이 분야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조정을 도모하여 양

계경영의 안정적 발전과 안전한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으로 국민보건에 기여하며 축산진흥에 공헌한다는 취지로 위생방역 대책위원회가 발족한 바 있다.

닭 질병의 예방관리로 생산원가 절감, 국가방역의 효율화 촉진, 질병 발생의 근원적 차단으로 생산농장에서의 질병 위험 최소화, 생산단계에서 질병예방과 위생관리를 연계하여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으로서의 상품화 효율을 높인다는 위원회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위원회는 양계협회 각 지부조직까지도 확대되어 구성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민간 방역기관으로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에 있어서 이들 민간 방역기관과 중앙 및 지방 방역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방역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앞으로 양계 생산자 단체들도 이들 민간방역기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양계질병근절에 이들 민간방역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질병방역은 무엇보다도 “농가 스스로가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건강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방역의식을 가져야 하며, 생산자들로 구성된 민간방역 주체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중앙방역기관 및 지방방역기관은 이들 민간방역 주체들이 해결할 수 없는 행정지원, 기술지원 및 예산지원 등을 병행 수행할 때 뉴캐슬병 등 닭질병의 발생 최소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계**